

프랑스에서의 原子力PA現況

- 初·中·高 社會科에서 原子力教育 -

原子力發電設備容量 :	5,064.4萬kW
運轉基數 :	52基
總發電電力量에서 占하는 比率 :	69.8%

現 況

총발전전력량의 약 70%를 원자력이 차지하여 EC제국내에서 전력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체르노빌사고에 의한 영향이 유럽 여러나라중에서 가장 적었던 나라이다. 주변제국의 보도영향으로 관련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주장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는 드골시대부터 「국가의 자립은 군비, 식료품의 자급, 에너지의 자급에 의해 달성된다」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국내 화석에너지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원자력 추진에 대한 각 정당간의 보조가 맞고 있다. 그러나 경수로의 예상 이상 고가동률과 수요의 저조에 의해 공급력 과잉경향이 되어 원자력개발계획이 둔화되고 있다.

1987년 3월에 나트륨이 누출되어 운전을 정지한 슈퍼피닉스-1(FBR)에 대해서는 FBR爐心の 본질적인 결함이 아니라 연료교환실부분의 용접결함인 것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연료교환실을 사용하지 않고 운전을 재개할 방침이다. 슈퍼피닉스-1에 이어지는 次期爐는 5년정도 걸려 歐洲統一爐의 설계연구 실시를 예정하고 있으나 코스트가 과세다.

PA對策

체르노빌사고 직후 정부의 공식입장은 「체르노빌사고가 있었지만, 프랑스에 영향은 없다」는 정도의 매우 간단한 것이었고, 일반대중의 반응은 온건했다.

프랑스전력청(EDF)에서는 3개월에 한번 국민 각 계층에서 추출한 1,000명을 대상으로 원자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체르노빌 이후의 1986년 11월과 1987년 5월의 조사에서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질문에 50%가 현재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는 인정하지만, 신규 건설에는 70%가 반대라는 결과가 나왔다.

前記의 조사결과는 프랑스의 전력공급력이 과잉되어 있다는 것을 EDF도 말하고 있고, 국민도 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된다. 또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앞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0~75%가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고 있으나, 이중 75%의 사람이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EDF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신뢰감을 나타내었다.

「원자력안전국」이 체르노빌사고 이후 원자력의 사고·고장을 6단계로 나누어 발표하기로 했다. 이 결과 신문에 게재되는 원자력기사가 감소되어 원자력보도의 혼란도가 정리되었다. 이것은 지난 반년간의 큰 성과라고 평가되고 있다. 다만 현행의 6단계 구분은 시험케이스로서 1989

년까지 실시되고, 그 후의 방침은 다시 검토하기로 되어있다.

체르노빌사고 직후 후생장관이 TV의 스포트 정보에 몇번 등장하여 영향이 적은 것을 호소하고 핫라인의 연락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며, 또 의사로 부터의 문의가 많았기 때문에 의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설명회도 가졌다.

원자력발전소는 교육계와 건강업계(의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국민학교, 중학교에는 문교부의 허가를 얻어 EDF에서 직접 자료를 보내고 있는데, 자료의 견본중에서 학교측이 선택하는 형식이다.

프랑스에서는 이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사회과에서 원자력을 배우고 있었다. 그 세대가 지금은 청년층을 형성하고 있어서 구주의 다른

나라와 달리 청년층에서 반대가 적은 것은 그와 같은 노력이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견학회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과의 교사들 중에는 원자력을 반대하는 교사도 있으나 견학회를 취소시키거나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강요하는 일은 없다. 개인적으로는 반대해도 학생을 인솔하여 견학회에 참가하며, 그 결과 생각이 바뀌는 교사도 있다.

프랑스 여론의 반응은 대체로 냉정하고, 成熟社會의 반응을 보이는데, 원자력시설 주변에서 기형아의 출산이라든가, 유전적 영향 등 신경질적인 반응은 없으며, 또 예기치 못한 피해나 그것을 보상한 사례도 없다.

特輯 世界各國의 原子力PA와 輿論調向

西獨

西獨의 原子力PA狀況

- 고아레벤施設을 一般에게 公開 -

原子力發電設備容量 :	2,128.5萬KW
運轉基數 :	20基
總發電電力量에서 占하는 比率 :	36.6%

現 況

체르노빌사고후 1987년 1월에 연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어 원자력 추진의 콜정권이 기독교민주동맹(CDU/CSU)과 자유민주당(FDP)의 연립으로 계속 집권하게 됨에 따라 추진의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이 선거에서 전보다 표를 많이 얻은 자유당은 원자력 개발에는 찬성하고 있으나, FBR과 재처리에 대해서는 기독교민주동맹(CDU)과 의견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한 조정이 앞으로 원자

력정책의 관건이 되고 있다.

각 정당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견해는 여당인 기독교민주동맹(CDU/CSU)은 추진하는 편이고, 사민당(SPD)은 연방과 州, 立地點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 예를 들면, FBR原型爐(SNR-3000)의 입지점인 노르트라인·웨스트·팔렌주는 연료장전·운전의 신청을 각하시키고 있는 한편, WA-350재처리공장이 있는 바이에른주와 폐기물저장시설의 고아레벤측은 SPD이지만 추진의 입장에 있다.

1987년 8월 방사성폐기물 수송회사인 트랜스 뉴클리어社에서 증수회사건이 발각되어 3명이 체포되고, 1명이 구류중 자살했으며, 또 동사가 고농축우라늄을 파키스탄과 리비아에 밀수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기사가 보도되어 단순한 증수회사건에 그치지 않고 핵비확산체